

희망펀드 400억으로 확대

LX-전북도-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도내 중기 금융지원 확대 협약

LX한국토지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가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과 손잡고 공간정보 협력기업과 전북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LX공사는 기존 전북도, IBK기업은행에 신용보증기금까지 참여하여 동반성장 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희망펀드 200억에서 400억으로 확대 ▲동반성장 협력대출에 시중 금리보다 최대 2.4%p 감면된 금리 제공 ▲SOC 기술마켓기업·ESG기업·수소기업·신용보증기금 저신용기업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IBK은행은 일자리 창출로

대출을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취업자에게 30만원의 취업 성공 축하금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LX공사 김기승 부사장은 “공공기관과 자치단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상생협력력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생 협력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맛도 영양도 으뜸, 양봉 산물 요리 21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양봉협회가 주최한 제1회 양봉요리 경연대회에서 남경애 양봉요리연구가가 양봉산물로 만든 bee happy라는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새만금 3GW 재생에너지 시대 막 올랐다

오늘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준공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 아래, 새만금이 열여덟 '재생에너지 시대'의 서막이 올랐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22일 새만금에서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의 준공식을 개최한다.

준공식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소순열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산업부, 군산시, 사업시행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준공은 지난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이후 가시화된 첫 번째 성과이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임을 선포하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 주민의 뜨거운 여망이자,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정책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산업연용지구 3.53km에 총사업비 약 4,300억원을 투입한 시설이다.

이번에 준공하는 1구역을 시작으로 총 2, 3구역까지 상업운전을 시작하면 총

300MW 규모에 달하는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이는 연간 약 8만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또한,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역 주민의 참여로 운영되는 ‘지역상생’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만금개발청은 태양광 사업과 발전 수익을 지역기업·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9년 2월 민관협의회를 발족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준공한 발전시설의 사업자인 (주)새만금희망태양광에는 지역 기업 6개사 (주)경원통신건설, (주)덴아이모퍼레이션, (주)연민건설, (주)신원전설, (주)진주문화방송 (유한백종합건설)가 참여했고, 그 중 2곳이 전체 시공의 40%를 진행했다.

또한, 지역 기업이 생산하는 태양광 모듈 등의 주요 기자재를 50% 이상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 기업이 새만금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관련 밸류체인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아울러, 사업지역 기준 1km이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 수익률 7% 만기 20년의 주민참여채권 모집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주민참여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준공을 신호탄으로, 수상태양광·해상풍력 등을 포함한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3GW급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이 조성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실현되는 스마트 그린산단을 만들어 저탄소·에너지자립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준공식에 참석해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준공을 위해 애쓴 관계자를 격려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의 비전 달성을 위해 새만금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만금이 새로운 국토발전의 모델을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등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힌 예정이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준공은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를 향해 내딛는 첫 걸음”임을 알리고,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와 스마트 그린산단이 공존하는 새만금만의 강점을 발휘해 우리나라가 친환경 경제국가로 대변환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LX공사, 동반성장 부문 대상

중기 확대 지원 등 인정

LX한국토지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2021년도 대한민국 동반성장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희망펀드 확대 조성, 창업 생태계 조성과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LX공간드림센터·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 LX공간정보이카데미가 동반성장 수상에 일조한 핵심 사업이다.

가장 대표적인 노력은 공간정보 협력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희망

펀드 확대 운영이다.

LX공사는 올해 전북도와 IBK은행·신용보증기금과 MOU를 체결했다. 이로 인해 희망펀드를 200억에서 400억으로 확대 조성하고 SOC기술마켓·ESG·수소·저신용 기업까지 대출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LX공사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LX공간드림센터도 운영 중이다. 지난 6년 간 창업기업 60곳을 모집해 공간·지원금·컨설팅 등 윈윈 서비스 제공해 137.9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16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에 앞장섰다.

또한 LX해외진출지원센터'를 통해 민간기업과 동반진출을 확대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해 89.6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더 나아가 LX공사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청년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LX공간정보이카데미'를 통해 직무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적극 기여했다는 평가다.

김기승 부사장은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과 동반성장 모델 구축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생태계 확대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남원시는 남원농업협동조합이 21일 시를 방문해 희망2022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에 작은 위로가 되길”

남원농협, 남원시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남원시는 남원농업협동조합이 21일 시를 방문해 희망2022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박기열 조합장과 이성수 상임이사, 이정숙 본부장이 참석했으며,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 및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남원농협은 매년 희망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며 지역사회에 따뜻

한 손길을 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남원지역 수해피해 주민들을 위해 쌀200포를 기탁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기열 조합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회환 시장은 “이회환 시장은 ‘기부’에 참여해 주신 남원농협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고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농협 신임 상임이사에 이성수 전 용남지점장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지난 12월 17일 조합 총회를 열고 제9대 상임이사에 이성수(60) 전 남원농협 용남지점장을 선출했다.

이 신임 상임이사는 참석 대의원 169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표를 기록하여 압도적으로 당선되었으며, 34년간 농협맨으로 지내온 동안 원만한 성격으로 직원들과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고, 각종 사업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이 상임이사는 남원용성고와 농협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취임사에서 “농업인 조합원에게 더욱 다가가는 농협을 구현하고 고객에게는 친절로써 봉사하는 농협 구현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농협은 조합원 7,560여 명으로 전국의 대규모 농협에 해당하고, 특히, 고죽동 부지에 조합원 복합이용시설(농기계수리센터, 주유소, APC, 농용자재마트, 극장, 하나마트, 금융점포 등)을 조성해 조합원의 편의증진에 나서는 한편,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동부노인복지센터와 아이맘센터를 유지해 지역농협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전국 최초의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농협은 부안농협이 2021년도 하반기 농업뉴딜 추진 평가에서 우수 농협으로 선정돼 시상했다고 21일 밝혔다.

하반기 농업뉴딜 추진 우수 농협 선정 ‘쾌거’

부안농협, 벼 피해 극복 라이브커머스 진행 ‘결실’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이 2021년도 하반기 농업뉴딜 추진 평가에서 우수 농협으로 선정돼 시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안농협은 올해 병해충으로 지역 대표 품종인 신동진 벼 피해가 심각해져 참채된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라이브커머스를 기획했다.

유 추석명철 기간 시범형 판매전을 6회 실시한 바 있고 지난 10월에는 신동진 햅쌀 10kg 판매 시 쌀과 김치 각각 2kg을 지역봉사단체에 기부하는 ESG 방식으로 네이버 쇼퍼라이브 채널을 통해 판매했다.

직접 조합장이 출연 당일 1,000포(10톤) 완판을 기록해 전국에 있는 타 농협에 많은 귀감이 되었다.

이러한 점이 협동조합 본연의 모습을 지키면서 디지털 유통분야에 새롭게 접목되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원철 조합장은 “농업인 소득인증을 위한 온라인업을 활성화로 농산물 매출이 증가되어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상승했다”면서, “앞으로도 농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으로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기자·부안=김석진기자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이 2021년도 하반기 농업뉴딜 추진 평가에서 우수 농협으로 선정돼 시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안농협은 올해 병해충으로 지역 대표 품종인 신동진 벼 피해가 심각해져 참채된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라이브커머스를 기획했다.

유 추석명철 기간 시범형 판매전을 6회 실시한 바 있고 지난 10월에는 신동진 햅쌀 10kg 판매 시 쌀과 김치 각각 2kg을 지역봉사단체에 기부하는 ESG 방식으로 네이버 쇼퍼라이브 채널을 통해 판매했다.

직접 조합장이 출연 당일 1,000포(10톤) 완판을 기록해 전국에 있는 타 농협에 많은 귀감이 되었다.

이러한 점이 협동조합 본연의 모습을 지키면서 디지털 유통분야에 새롭게 접목되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원철 조합장은 “농업인 소득인증을 위한 온라인업을 활성화로 농산물 매출이 증가되어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상승했다”면서, “앞으로도 농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으로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기자·부안=김석진기자

‘탄소중립 실천’... 전개공, 수직정원 조성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청사 1~2층 유휴공간에 실내 수직정원 및 직원 휴게시설을 새롭게 조성했다고 21일 밝혔다.

1층 로비 벽면에는 공기정화와 실내 조경효과를 위한 실내 수직정원을 조성, 정부의 탄소중립 실천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이용자들의 우울감 해소를 위한 휴식과 심신의 인전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층 유휴공간은 공간활용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가구 및 조형 인테리어나 공사를 실시,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고객 만족도 중 근무환경(휴게시설) 분야 점수가 전년 대비 13.8%(66.4%→80.2%) 상승한 만큼, 내년에는 수직정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2022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어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